

【논문】

##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sup>\*,\*\*</sup>

이 윤 철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언어론

【주요어】 프로타고라스, 언어의 옳은 사용, 자연주의적 언어론, 시민 교육

【요약문】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관심은 단어 혹은 이름의 옳음(orthoepeia)과 바른 문법의 구현 등, 언어의 옳은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주장하는 언어의 옳은 사용은 그 토대를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두고 있기에,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은 곧 자연주의적 언어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입장에서 그는 ‘사물들의 본성적 성(性)에 기초한 문법적 성(性)’과 그에 따른 이름들의 상호간 ‘형태적 일관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언어를 옳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시민 교육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종족)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모든 이들은 서로간에 말 되어진 것 즉 언어를 통한 교육과 글로 쓰여진 것 즉 도시의 법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데(『프로타고라스』320c-328d), 그렇기 위해서는 언어를 옳게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동체 내의 모든 이들이 발화된 말과 쓰여진 글 즉 언어를 옳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12년 7월~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본 논문은 한국서양고전철학회 2012년 가을 학술대회(11월 24일, 조선대학교)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논평과 투고 논문의 심사를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I. 들어가는 말

고대의 사료들을 따르면 프로타고라스는 언어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름의 옳음(orthoepia)<sup>1)</sup>과 언어의 옳은 문법적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로 문법과 언어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했던 공로를 인정하며,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통찰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인지, 혹은 그가 어떤 의도로 언어론을 구성하고자 시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비록 오직 수사(修辭)의 관점에서만 그 의도를 파악하려는 몇몇의 지역적인 제안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의 언어 이론에 대한 관심을 논의의 주제로 삼아 일괄의 연구 성과를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안티폰의 ‘그림직한 논변(eikos logos)’, 프로디코스의 ‘이름의 옳음’, 그리고 안티스테네스의 ‘고유 언어(oikeios logos)’ 입장 등에만 집중되고 있다.<sup>2)</sup> 학자들이 안티폰이나 프로디코스, 또는 안티스테네스에 대해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각각, 첫째, 그 소피스트들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을 보여주는 고대의 사료가 그 분량에 있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비록 일부 사료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것들 안에서조차 프로타고라스가 구체화했을 자신의 언어론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을 다루는 이 논문은 크게 세 목적을 가진다. 첫째,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그려내고 있는 고대의 사료들을 소

1) 이름뿐만이 아니라 단어까지 포함하여 이것들의 옳음을 의미하나, 간단히 ‘이름의 옳음’이라고 칭하겠다. 이후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을 논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 이름, 그리고 명사라는 말은 상호 치환이 가능한 것으로, 문맥의 편의상 이것들 중 하나만 거론되더라도 그 모두를 함의하고 있음을 미리 알린다.

2) 예를 들어, 클라센C. J. Classen(1976, 306-11쪽), 고펜르츠H. Gomperz(1965), 거드리W. K. C. Guthrie(1971), 커퍼드G. B. Kerferd(1981), 그리고 랭킨H. D. Rankin(1986) 등을 참조할 것.

개하여, 사실 그 사료들이 그의 언어론을 유추하여 구성해 보는데 있어 분량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 둘째, 비록 그 사료들 안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 언어론의 실체를 (이론화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료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문법적 성(性)grammatical genders on the basis of natural genders of things’과 그에 따른 이름들의 ‘형태적 일관성morphological consistency’<sup>3)</sup>에 놓여있는 일종의 자연주의적 언어론naturalism of language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의 옳은 사용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인식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수사적 의도에서만 살피려는 몇몇의 지엽적인 제안과 달리, 그의 시민 교육에 대한 주장과 연계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II.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전하는 고대의 사료들

몇몇 고대의 사료들이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관심을 보고하고 있다. 이 사료들에 따르면, 그는 단지 체계적인 문법적 일관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이름이 그것들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하여 주어졌으며, 그에 따라 언어를 옳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들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 혹은 기술을 이름의 옳음이라 명명한 뒤, 이를 두 차례 언급한다. 먼저, 이름의 본성과 옳음에 대해 논하는 대화편인 『크라틸로스』에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가 사물들이 각각의 본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이름을 옳게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술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그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우선 이름의 옳음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두 견해, 즉 자연주의적 언어론과 규약주의적 언

3)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문법적 성’과 언어의 ‘형태론적 일관성’이란 용어는 라나 I. Lana(1950, 56쪽 이하)와 커퍼드(1981, 68-9쪽)로부터 빌려왔음을 밝힌다.

어른conventionalism of language을 소개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화편에서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가지는 크라틸로스의 견해] 있는 것들 각각에는 저마다 옳은 이름이 본성상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어떤 것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대로 함의하고 부르는 언어의 조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을 붙이는 옳은 규칙은 본성상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 사람이든 이민족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 이름은 사물들에게 본성에 따라 있습니다.

[대화편에서 규약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가지는 헤르모게네스의 견해] 제 [헤르모게네스]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옳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실령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 것이 이전 것 못지 않게 옳다는 것입니다. [...] 어떤 이름도 각 사물에 본성상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습을 확립하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언어의 자연주의적 입장과 규약주의적 입장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다. 전자는 옳은 이름이란 개인이나 관습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이고 같은 객관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후자는 옳은 이름이란 누구나 그 이름을 붙이는 자에 따라 주어지기에, 어떤 객관적이고 본성적인 이름은 없다는 견해를 의미한다(이름이 어떤 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특정 관습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 즉 개개인이 이름의 옳음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각 입장을 위와 같이 규정한 뒤, 플라톤은 이어서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일반적 논거에 의한 규약주의적 언어론 비판을 전개하고(385e-390e), 다시 어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설명에 따라 규약주의적 언어론을 비판한다(390e-427d).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규약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433b-435d), 이 두 입장의 중간적인 노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435d-440e) 대화편을 마친다. 프로타고라스가 언급이 되는 부분은,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일반적 논거

에 따른 규약주의적 언어론에 대한 비판을 논하는 부분에서(385e-390e), 어원에 대한 전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후자를 비판하는 논의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이름들은 사물의 본성에 따라 지어질 때 옳다고 하는 이름의 옳음, 즉 어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은 소피스트들, 특히 프로타고라스에 의해 가르쳐졌기에, 그의 언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것을 자신의 대화상대자이자 규약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고수하는 헤르모게네스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헤르모게네스는 자신이 프로타고라스의 『진리(Alētheia)』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싫을 것이라 하고,<sup>4)</sup> 이에 따라 논의는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입장 대신에 호메로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 즉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신들의 이름을 고찰한다.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사물의 본성에 따라 옳은 이름이 있다고 하는 바를 가르쳤다는 것은 대화편의 390d-391c(DK80 A24)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헤르모게네스에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 [· · ·] 크라틸로스는 참되게 말했는데, 이름은 사물들에게 본성상 있고, 모두가 아니라 오직 각 사물에 본성상 있는 이름을 주목하고 그것의 형상을 자모(字母)와 음절로 구현할 수 있는 자만이 이름들의 제작자라고 말하니 말일세. [...] 한테 지금 자네와 내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전에 비해서 적어도 이 점은 이미 더 분명해졌네. 즉 이름은 본성에 따라 어떤 옳음(orthotēta)을 가지고 있으며,

- 4)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진리』란 그의 ‘인간척도론’이 담겨있는 저술이라 칭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간척도론’은 다음과 같다. πάντων χρημάτων μέτρον ἐστὶν ἄνθρωπος, τῶν μὲν ὄντων ὡς ἔστιν, τῶν δὲ οὐκ ὄντων ὡς οὐκ ἔστιν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척도는 인간인데, 있는/인(또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다/이다(또는 어떠한)는, 그리고 있지/이지(또는 어떠한)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지/이지(또는 어떠한) 않다는 바에 대해 [척도이다]) (DK80 B1). 그렇기에, 헤르모게네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싫겠다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군가가 어떤 것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옳은 이름인 것 같고, 따라서, 실령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 것이 이전 것 못지않게 옳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헤르모게네스의 규약주의적 언어론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론’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사실 일종의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와 관련해서는 뒤의 부록을 참조할 것.

모든 이가 어떤 사물이나 이름을 [잘] 붙일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일세. 그렇지 않나? [...]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자네가 알고 싶다면, 도대체 [사물의 본성에 따른] 이름의 옳음이 무언지를 살펴봐야지. [...] 그것을 살펴보는 가장 옳은 길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말이네. 그런데 그들은 소피스트들이며, 자네의 형인 칼리아스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었지. 한데 아버지의 유산이 자네에게 있지는 않으니, 프로타고라스로부터 이름들에 대한 옳음을 배운 자네 형에게 가르쳐 달라고 조르고 간청해야 한다네. [...] 허나 [이름의 옳음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이 자네에게 달갑지 않다면, 대신 호메로스나 다른 시인들로부터 배워야지. [...] 왜냐하면 신들이 사물들을 본성에 따른 이름으로 옳게 부른다는 것은 분명하니 말일세.<sup>5)</sup>

이후 참된 수사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논하는 대화편인 『파이드로스』 267b-c(DK80 A26)에서,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가 연설 기술과 연설 전문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름의 옳음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전문 기술이 다시 한 번 언급된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반복법, 격언법, 비유법과 같은 폴로스의 말(logos)들의 전당(殿堂)이나, 미사여구를 지으라고 그에게 선물한 리킵노스의 단어/이름들의 전당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파이드로스: 한데 소크라테스여, 프로타고라스의 것들이 실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었나요?  
 소크라테스: 여보게, 그걸 일종의 이름의 옳음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 외 다른 많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3권 5장 1407b6-9(DK80 A27)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이름들의 성(性)을 구분했다고 전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름들의 종류를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으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역시 옳게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데 [여기에] 와서(ἐλθοῦσα)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διαλεχθεῖσα) 그녀는 떠나갔다.”

5) 신들이 사물들을 그것들의 본성에 따라 이름 부른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201a1-2와 『테아게스』 128a7 또한 참조할 것.

그리고 『소피스트적 논박』 14장 173b16-25(DK80 A28)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법위반<sup>6)</sup> *solecism*의 사례를 들면서, 프로타고라스에 따라 ‘메니스(*μῆνις*: 분노)’와 ‘펠렉스(*πίληξ*: 투구)’와 같은 여성형 단어들도 옳게 남성형 단어들로 이해되는 경우 어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법위반(*soloikismos*: 파격破格)<sup>6)</sup>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다.<sup>7)</sup> 한데 이것을 실제로 저지르는 것, 실제로는 저지르지 않는데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저지르면서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가능한데, 마치,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던 것처럼, ‘메니스(*μῆνις*: 분노)’와 ‘펠렉스(*πίληξ*: 투구)’란 이름이 남성형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를 경우 ‘파멸을 초래하는(*οὐλομένην*: 여성형어미)’ [분노 또는 투구]라고 말하면 어법을 위반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파멸을 초래하는(*οὐλόμενον*: 남성형어미)’ [분노 또는 투구]라고 말하면 어법을 위반한다고 보여지나 실제로는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시학』 19권 1456b15-18(DK80 A29)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타고라스가 문법 규칙에 있어 *mood*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호메로스를 비난했다고 전한다.

누군가는 프로타고라스가 [호메로스를] 비난했듯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라고 말할 때, 기원(청원)을 하려면서 명령법을 사용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프로타고라스)가 말하길, 무엇인가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2(DK80 A1)에서 프로타고라스를 처음으로 동사의 시제들을 구분 지은 자로 그리고 있으며, 또 9.53-54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화법을 네 가지로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

6) 김재홍(1999, 65쪽과 137-141쪽)을 따를 경우 이는 ‘어법어김’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7) 같은 책 3장 165b20-25. 어법위반은 원래 그리스어의 어형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적 오류’라고 규정한다.

에 의하면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고 보고한다.

또한 [프로타고라스는] 처음으로 시제(merē chronou)<sup>8)</sup>를 구분하였다.

[프로타고라스는] 처음으로 화법(logos)을 네 가지, 즉 기원/칭송(euchōlē), 질문(erōtēsis), 대답(apokrisis), 명령(entolē)으로 (혹 다른 어떤 이들에 따를 경우, [그는 화법을] 설명(diēgēsis), 질문(erōtēsis), 대답(apokrisin), 명령(entolē), 보고(apangelia), 기원/칭송(euchōlē), 제안/권유(klēsis)의 일곱 가지로) 나누었고, 이를 화법의 기초라고 불렀다.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문법적 아이디어의 내용을 전하는 이상의 사료들 외에, 비록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 658-679행(DK80 C3) 역시 그의 언어론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다. 거기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옳은 어미(語尾)란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와 스트렙시아데스의 논의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8) 말 그대로는 ‘시간의 부분’을 뜻하나, 문법 해설의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동사 시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프로타고라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에 맞춰 동사 시제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거나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상황에 맞게 시제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강조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파이프러 R. Pfeiffer(1968, 280-1쪽)는 ‘동사들의 시제 구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수형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복수형을 통해서, 즉 ‘μέρη χρόνων’이라는 표현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동사들의 시제 구분이 시간에는 부분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없어 보인다. 부분을 가진 어떤 것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형의 표현으로 그려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다리나 팔 그리고 머리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그리고 그것들이 구분되어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복수형을 통해 ‘μέρη ἀνθρώπων’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순히 단수형의 표현을 통해, 즉 ‘μέρη ἀθρώπου’라는 표현으로 인간에게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μέρη χρόνου’라는 표현만으로도 시간에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구분되어 그에 맞는 문법적 표기 형식 즉 시제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프로타고라스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동사의 시제들’을 의미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소크라테스: 그 전에 다른 것부터 배워야 하네. 네 발이 달린 동물들 중 어떤 것들이 실로 남성(arena: 수컷)이지?

스트랩시아데스: 남성들을 모른다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게요. 숫양, 숫염소, 수소, 수캐, 닭(alektryōn).

소크라테스: 그것 보라니까. 자네는 여성(thēleian: 암컷)도 남성도 똑같이 닭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스트랩시아데스: 어떻게요? 말해주세요.

소크라테스: 어떻게라니? 이것도 닭, 저것도 닭이라고.

스트랩시아데스: 포세이돈에 맹세코, 그랬군요. 그럼 제가 이제 어찌 불러야 하나요?

소크라테스: 하나는 ‘암탉(alektryaina)’이고, 다른 것은 ‘수탉(alektor)’이지.

스트랩시아데스: ‘암탉’이라고요? 아이르에 맹세코,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그걸 가르쳐주었으니 선생님의 그릇에(tēn kardopon) 보릿가루를 곱봉으로 채워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이것 보게, 또 그러는 군. 여성인 그릇을 남성으로 부르니 말일세.

스트랩시아데스: 어째서요? 제가 그릇을 남성으로 부른다고요?

.....

소크라테스: 어째서라니? ‘암-그릇(tēn kardopēn)’이라 불러야지. ‘암-소스트라테(tēn Sōstratēn)’라고 부르듯 말일세.

스트랩시아데스: 여성인 ‘암-그릇’으로요?

소크라테스: 이제야 옳게 말하는구려.

위의 풍자에서 볼 수 있듯, 아리스토파네스는 오직 소크라테스와 스트랩시아데스를 등장시켜 옳은 어머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프로타고라스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프로타고라스와 관련된 전언들과 단편들을 담은 현대의 몇몇 편집본들이나 소개서들에서 위의 풍자는 간혹 배제되곤 한다.<sup>9)</sup> 허나, 비록 아리스토파네스가 당시 소피스트들과 그들의 활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며 신랄한 풍자를 통해 비꼬았고, 특히 소크라테스를 일종의 소피스트들의 대부(大父)로 여겼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풍자에서 다루어지는 언어론적 아이디어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크라테스 그 자신의 것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

9) 예컨대, 딜런J. Dillon과 거겔T. Gergel이 편집 및 번역한 *The Greek Sophists*(2003)나 오그레이디O’Gready가 편집하고 레이버리J. Lavery가 해석을 맡은 *The Sophists: An Introduction*(2008)에서 이 풍자는 프로타고라스의 단편 및 전언 목록에서 빠져있다.

기에 이 풍자에서 드러나는 언어론적 입장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후대의 보고를 통해 그려지는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옳은 사용의 주장 사이의 유사성에 비추어, 이 풍자를 통해 아리스토파네스가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인물이 소피스트들의 대부인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사실은 소피스트들 중 하나였던 프로타고라스였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는 단지 소피스트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상정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거드리(1971, 221쪽)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이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어, [...] 실제로는 남성형 이름들과 여성형 이름들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드메이커A. Rademaker(2007, 1쪽)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에서 의도했던 바는 소피스트적 사고의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하여 희극적으로 곱재겨 구성하고, 이를 기원전 423년경 아테네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소피스트(즉, 소크라테스)에게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파네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적 아이디어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이는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고찰을 전하는 몇몇 ‘진지한’ 사료들이 그가 실제로 이름의 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기 때문이다.”<sup>10)</sup>

이상의 고대 사료들이 보여주듯, 언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문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타고라스의 모습에 주목한 현대 학자들은 옳은 언어적 그리고 문법적 사용을 강조하는 그의 견해를 높이 사면서, 프로타고라

---

10) 카나부N. Kanavou(2010, 78-9쪽)는 이 풍자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비꼬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프로타고라스 외에 프로디코스 역시 풍자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프로디코스 역시 이름의 옳음을 강조한 소피스트로 여겨져 왔는데, 특히 플라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프로타고라스보다 더욱 많이 그리고 자주 그를 언급한다. 예컨대, 『크라틸로스』 384a-c(DK84 A11), 『프로타고라스』 337a-c(A13), 『메논』 75e(A15), 『에우튀데모스』 277e-278a(A16), 『라케스』 197d(A17), 『카르미데스』 163d(A18), 그리고 『파이드로스』 267b(A20)에서 이름의 옳음과 관련하여 프로디코스의 이름이 언급된다. 헤쉬키오스의 『플라톤의 ‘국가’ 600c에 대한 주해 *Onomatologus in Scholia on Plato’s Republic 600c*』(DK80 A3)와 『수다Suda』의 ‘프로디코스’ 항목(DK84 A11)에 따르면, 프로디코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프로디코스가 프로타고라스로부터 이름의 옳음에 대한 교육을, 또는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할 여지도 있다.

스를 문법과 언어학에 대한 그리스 최초의 학자라 평하였다. 예를 들어 스타인탈H. Steinthal(1891, 136쪽)은 프로타고라스의 이름의 성 구분을 “최초의 문법적 사실의 발견the discovery of the first grammatical fact”이라 칭한다. 포찌히W. Porzig(1950, 353쪽)는 프로타고라스를 “언어를 탐구한 최초의 학자the first scholarly student of language”라고, 디 체사레D. Di Cesare(1996, 104쪽)는 그를 “문법 연구의 창시자the founder of grammatical research”라고 부르며, 딜런과 거젤(2003, 341쪽 각주 10)은 그가 “실질적으로 그리스 문법의 아버지substantially the father of Greek grammar”였다고 평한다.

### Ⅲ. 자연주의적 언어론

그런데 고대 그리스 문법의 아버지로서 언어와 문법에 대해 최초로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받는 프로타고라스 언어론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의 옳은 사용에 대한 플라톤의 진술들은, 그 소피스트가 사물들은 자신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각각 알맞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 기초하여 언어적 사안들을 고려했으며, 이로부터 이름의 옳음이라는 기술을 공언했다고 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례들을 통해 이 입장이 가지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프로타고라스가 문법적 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호메로스를 비판했다고(『시학』 19권 1456b15-18) 전하는데, 여기서 프로타고라스가 사물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언어적 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를 볼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 비판의 핵심은 누군가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이나 신성한 존재자에게 기원 혹은 간청을 할 경우 기원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데, 호메로스는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μῆνιν ἄειθε θεά)’라고 하며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에게 노래를 청하는 것은 인간인 반면, 그 인간의 청을 듣는 자는 여신이며, 인간은 본성상 신들에 비해 열등한 반면 신들은 인간들에 비해 본성상 우등하다. 본성상

열등한 어떤 이가(즉 인간이) 본성상 우등한 어떤 이에게(즉 여신에게)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옳지 않다. 이 경우 그 열등한 자는 우등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기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옳다.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본성에 위배되고, 따라서 마땅히 기원 혹은 간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이나 간청은 명령법이 아니라 기원법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기에, 비록 프로타고라스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위의 호메로스 구문은 ‘분노를 노래해 주소서, 여신이여(μῆνιν ἀείδοις θεά)’라고 교정될 경우에만 옳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어서 프로타고라스가 이름들의 종류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중성으로 나누었다고(『수사학』 3권 5장 1407b6-9) 하며, 그 예로 ‘한데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그녀는 떠나갔다(ἡ ἐλθοῦσα καὶ διαλεχθεῖσα ὄχρετο)’라는 문장을 든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단순히 관사로 표시되고 있다. 이 관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은 주어가 과거에 했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이 분사들은 모두 여성형, ἐλθοῦσα([여기에] 와서)와 διαλεχθεῖσα(이야기를 나누곤)로 처리되고 있기에, 곧 주어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장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대상, 즉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그녀’의 자연적인 성에 기초하여, 분사들과 관사 사이에 문법적 성의 일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예시를 더 드는데, 그것은 당시 관습적으로 여성형으로 통용되던 ‘메니스(μῆνις: 분노)’와 ‘펠렉스(πήληξ: 투구)’라는 단어들이다(『소피스트적 논박』 14장 173b16-25). 이 예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따를 경우 누군가 ‘메니스’를 ‘οὐλόμενη(파멸을 초래하는)’ 즉 여성형 분사를 사용하여 수식하는 경우 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위반하는 반면, ‘οὐλόμενον(파멸을 초래하는)’ 즉 남성형 분사를 통해 수식한다면 실제로는 어법위반을 범하지 않는데 마치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이유는 프로타고라스를 따를 경우, ‘메니스’와 ‘펠렉스’라는 여성형 단어들은 실상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대상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남성형 단어들로 이해되어야 함이 옳기 때문이다.

사실 왜 당시 규약적으로 여성형 단어들로 통용되던 ‘메니스’와 ‘펠렉스’

가 남성형 단어들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프로타고라스 자신의 상세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프로타고라스는 아마도 분노(메니스: μῆνις)와 투구(펠렉스: πῆληξ)가 주로 남성들의, 특히 전장에 선 남성들의 감정적 상태를 지칭하고 전투를 위한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본성적으로 ‘남성’적 성향에 더욱 가까우며 따라서 ‘여성’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 같다. 실로 분노와 투구(와 이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들 즉 ‘메니스’와 ‘펠렉스’)가 남성 전사들에게 부과되어 있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으며, 이것들의 이런 특징은 특히 서사시의 전통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주요 남성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는 아킬레스는 자신의 별칭으로 직접 ‘메니스’를 가지며, 펠렉스는 전투에 임하는 남성 전사들이 머리에 착용했던 투구로 (특별히 여성 전사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리고 비록 여성 전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투구를 착용하고 전투에 임하지 않는 한) 남성을 위한 그리고 남성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메니스’와 ‘펠렉스’라는 단어들(을 여성형 분사인 ‘ούλομένη(파멸을 초래하는)’)로 수식할 때 어법위반이 발생하는 까닭은, 그 단어들(이 비록 당시 규약적인 문법 사용 용례에 따라 여성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의 뜻을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들의 본성적 입장에서 고려할 경우, 여성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성에 더 부합하기에 그렇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프로타고라스는 당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름들의 문법적 성을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들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뒤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메니스’와 ‘펠렉스’가 가리키는 실제적 대상들이 가진 본성적 남성성에 따라, 그 단어들(을 남성형 분사 즉 ‘ούλόμενον(파멸을 초래하는)’)으로 수식해야지만 어법위반을 범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루고바야 J. Lougovaya와 아스트 R. Ast(2004, 274-7쪽)는 여기서 ‘메니스’가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는 분노가 아니라 단순히 마침 ‘메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남성의 바로 그 이름이며, ‘펠렉스’는 아티카의 한 데모스[區]인 펠레케스 Peleces 출신의 불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기초하여 그들은 ‘마치,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던 것처럼, ‘메니스’와 ‘펠렉스’란 이름이 남성이라고 한다면 말이다’라는 구절에서 프로타고라스가 단어들이 가진 문법적인 성이 잘못 사용되어 어법위반을 범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제로 남성에 부과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름에다 여성형 분사를 붙이는 바람에 발생하는 어법위반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당신이 ‘메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남성형 어미가 붙은 분사인 ‘οὐλόμενος’를 붙여 ‘과멸을 초래하는 메니스씨’라고 부르는 경우, (그 메니스씨가 남성이기)에 당신은 실제로 어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메니스’라는 단어는 여성형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어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당신이 메니스씨에게 여성형 어미가 붙은 분사인 ‘οὐλομένην’를 붙여 ‘과멸을 초래하는 메니스양’이라고 부르는 경우, (‘메니스’라는 단어는 여성형이기)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 메니스씨는 남성 인물의 이름이기)에 엄밀히 당신은 어법을 위반하고 있다.”

루고바야와 아스트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의 옳은 사용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다른 사례들, 예컨대 이름들의 성의 구분(『수사학』 3권 5장 1407b6-9)과 법의 구분 및 올바른 사용(『시학』 19권 1456b15-18)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게다가 ‘펠렉스(Πήληξ)’가 정말로 아티카의 한 데모스[區]인 펠레케스 출신의 불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이 반드시 그 데모스 출신의 남성 시민이어야 한다는 보장 역시 없다. 펠레케스 출신의 여성 역시 똑같이 한 ‘펠렉스(Πήληξ)’라고 불릴 터이며, 이 때에는 여성형 어미를 가진 여성형 분사 또는 여성형 형용사 등을 통해 수식을 하더라도 어법위반을 저지르지 않는다. 단순히 아티카의 펠레케스 데모스에는 남성 시민들도 있다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적 오류’인 어법위반을 다루는 언어론의 일반 논의를 지지하거나 주장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프로타고라스가 동사의 시제들을 구분하고(9.52) 화법(logos)을 네 가지 형태 즉 기원/칭송, 질문, 대답, 명령으로 (혹 어떤 이들에 따를 경우, 설명,

질문, 대답, 명령, 보고, 기원/칭송, 제안/권유의 일곱 가지로) 구분했다(9.53-54)고 하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보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제의 구분을 통해 프로타고라스는 과거에 발생했던 바를 가장 옳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동사의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터인데,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은 본성상 과거의 일이며 더 이상 현재나 미래에 속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바를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의 시제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사태의 본성과 그 사태를 표현하는 언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사태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의미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옳다고 할 수 없다. 화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역시 동일한 기준에 기대고 있어 보인다. 누군가 질문을 하려 하는 경우, 그는 질문의 화법을 사용해야 하며, 반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때도 그에 맞는 화법 즉 대답의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질문은 그 본성상 대답과 같지 않기에 그것의 언어적 표현들 즉 화법 역시 구분되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프로타고라스는 주장하는 것이다. 위의 사료들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 볼 때,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사물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문법적 성’의 확립에 놓여있다는 점이 확인된다.<sup>11)</sup>

아리스토파네스의 풍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타고라스 언어론에 대한

11)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로부터 전해지는 사료들만을 볼 경우,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이 규약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해 어법 위반의 사례나 이름/단어의 성 및 법의 구분, 그리고 시제와 화법의 구분이, 좁게는 언어를 사용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넓게는 한 사회 안에서 약속된 바에 따라 규정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니스와 켈릭스가 남성성에 부합하기에 남성형 명사들로 보거나 신이 인간보다 우월한 본성을 가지기에 신에 대해서 기원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그것들을 남성으로 보고 신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에 혹은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그것들을 남성으로 이해하고 신의 인간에 대한 우월성을 약속하기에 그런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적도론’과 잘 부합해 보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 플라톤이 전하는 사료는 전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필자는 단편들 사이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사료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사료들을 일관성 있게 먼저 읽어낸 후 그로부터 단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길을 제안한다.

사료로 받아들일 경우,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사물들의 본성에 기초한 문법적 성의 강조와 더불어, 그에 따라 언어들에 표기된 모양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형태적 일관성(morphological consistency)’에도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름의 옳음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프로타고라스를) 비꼬면서, 그들이 ‘닭’을 뜻하는 단어인 ‘알렉튀온(ἀλεκτρυόν)’을 닭의 본성적 성 따라 그 닭이 암컷일 경우에는 그 닭이 가진 자연적 여성성에 기초하여 단순히 ‘닭’이 아니라 여성형 어미(語尾)인 ‘-αινα’를 동반하여 ‘알렉트뤼아이나(ἀλεκτρυάινα: 암닭)’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반면에 그 닭이 수컷일 경우에는 그 닭의 자연적 남성성에 기초하여 남성형 어미인 ‘-ορ’를 통해 ‘알렉토르(ἀλέκτορ: 수닭)’로 이름 불러야 함을 주장한다고 그려낸다. 그들에 따르면 관사를 붙여 ‘그릇’을 뜻하는 ‘텐 카르도폰(τὴν κάρδοπον)’ 역시, 그릇의 본성적 성을 고려하여, ‘암-그릇’ 즉 여성형 어미인 ‘-ην’과 함께 ‘텐 카르도펜(τὴν καρδόπην)’으로 옳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형 이름인 ‘카르도폰(κάρδοπον)’이 남성형 어미인 ‘-ον’을 가지기에 형태론적으로 여성형 관사인 ‘ἡ(사료 안에서는 τὴν)’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왜 그릇이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릇의 기본적인 역할 또는 기능이 음식을 담는 것이며, 부엌과 같은 곳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담당을 맡은 자들이 부인이나 여성 노예였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아니면, 재생산 혹은 출산의 성격에 부합하지는 않기에 다소 거칠며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철학적 혹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그릇이 ‘담지’의 본성을 가지기에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에 더욱 부합한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릇은 자연적으로 여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성에 따라 ‘암-그릇’으로 불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풍자에서 이름의 옳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대화자들은 이름들이 대상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문법적 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각 이름들에 붙는 어미가 역시 성에 따라 옳게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름에 붙는 옳은 어미는 결국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하여야 하

는데, 그 대상이 여성성을 가질 경우에는 여성형 어미가 그리고 남성성을 가질 경우에는 남성형 어미가 이름에 붙어야 하기에, 곧 이름의 옳음이 사물들의 본성에 기초하여 문법적 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데 있어 실제적 성과 문법적 성에 따라 언어들 사이의 ‘형태론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종합하면,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관심은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을 주시하는 것에 기초한 언어론적 탐구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각각의 사물들이 그것들의 자연적 성 또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본성과 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적 특성들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그러한 ‘사물들의 본성에 따라 문법적 성’이 그리고 그에 따라 언어의 ‘형태론적 일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간단히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플라톤은 『크라틸로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사물들이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이름을 옳게 가지고 있다는 바에 대한 전문 기술, 즉 이름의 옳음을 가르쳤다고 소개하는데, 그 기술이 함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란 결국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가리킨다.

#### IV. 인식 상대주의 혹은 수사적 도구로서의 프로타고라스 언어론?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그가 그와 같은 언어론의 입장을 고수하였는지에 대해 몇몇 현대의 해석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던F. M. Dunn(2001, 547-50쪽)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보고하는 프로타고라스의 동사의 시제 구분(9.52)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언어론은 형식론적 언어론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구분을 짓고, 그로부터 인간은 “현재에 대한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경험,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제한적인 재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가진 존재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척도론’을 통해 대변되는 프로타고라스의 급진적인 지각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정확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주어진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판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름 아닌 그 판단을 이룬 개별적인 인간(의 지각) 그 자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간척도론’은 곧 ‘어떤 것  $x$ 가 어떤 이  $a$ 에게  $F$ 로 나타나는 경우/지각되는 경우, 그  $x$ 는  $a$ 에게  $F$ 이며, 동일한 것이  $b$ 에게 ( $F$ 가 아니라)  $G$ 로 나타나는 경우/지각되는 경우, 그것은  $b$ 에게  $G$ 다(즉,  $F$ 가 아니다)’라는 뜻의 언명이다. 이때 인간에게 인식 활동의 영역으로 가능한 것은 오로지 (지금 지각이 작용하고 있는) 즉각적인 현재뿐이며, 과거는 이전에 지각한 내용에 대한 제한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인식의 영역이고, 미래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인간의 인식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던의 주장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론’ 해석과 관련하여 비록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동사 시제의 구분’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제를 ‘구분’하는 일이란 곧 각각의 시간에 벌어진 각각의 사태와 관련하여 그것이 발생 한 때를 적절하게 가리킬 수 있도록 옹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게끔 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시제를 ‘구분’하는 일에 따를 경우, 과거에 발생한 사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가장 옹고 자연스러운 방식은 그 사태가 과거에 발생하였기에 그 사태의 과거 발생적 성격에 따라 과거 시제를 통해,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통해,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에 과거는 제한적이며 미래는 접근 불가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과거(에 발생한 사태)와 미래(에 발생할 사태)가 구분된 동사의 시제를 통해 옹게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바가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동사의 시제를 구분하는 것 외에 화법과 법의 구분 그리고 이름의 문법적 성이 실제 대상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형태론적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고 있는데 반해, 던의 주장은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해주지 못하거나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는 문제를 가진다.

사료적으로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 이론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거나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 그리고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언어 이론을 위해 오로지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인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언어론은 단지 청중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사(修辭)적 목적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로빈스 R. H. Robins(1997<sup>4</sup>, 32쪽)는, 비록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견해들이 이후 언어에 대한 연구를 촉발 시키기는 했으나, 그 자신은 대체로 오직 수사적 견해의 틀 안에서 언어를 관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로빈스의 주장은 프로타고라스가 수사를 위한 설득의 도구로 언어와 문법을 관찰하였으나, 체계적인 언어 이론을 구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펠링 D. Fehling(1965, 214쪽)은 프로타고라스가 제시하는 종류의 문법 사용의 구분이 언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당시의 시인들과 시(詩)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담은 한 사례일 뿐이라고 더욱 강하게 주장하며, 그 비판 조차 “조잡한 방식에서 개선되었을 뿐”이라 평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펠링은 프로타고라스가 이름들의 문법적 성의 구분과 호메로스 에 대한 비판을 위해 든 사례들이 오로지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첫 구절에서만 인용되었다는 점을 든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처럼 잘 알려진 텍스트를, 그것도 그것의 첫 구절을 뽑아 공격을 하는 것은 청중들을 설득시키거나 현혹하는데 있어 무척이나 효과적인 수사 기법이며, 이것이 곧 프로타고라스가 언어에 관심을 둔 이유라고 단정한다. 이들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레이드메이커(2007, 3-4쪽)는 프로타고라스가 보여준 언어와 문법에 대한 제법 진중한 관찰을 인정하나, 동시에 그의 언어론은 “호메로스 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취하려 했던 수사적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한다.

남아 있는 사료들의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프로타고라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수사적 행위를 했고 정확히 어떤 종류의 수사적 기술을 가르쳤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에컨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5, DK80 A1)는 비록 현재 전해지지는 않으나 프로타고라스가 『논쟁 기술(Technē Eristikōn)』이라는 책과 『반박 논변에 관한 두 책(Antilogiōn A B)』을 저술했다고 보고한다.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2권 24장 1402a23, DK80 A21과 B6b)와 에우독소스(단편 307, DK80 A21)는 프로타고라스가 ‘약한 논변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전하며, 다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같은 책 9.51, DK80 A1과 B6a)는 프로타고라스가 처음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어 놓이는 두 논변들이 있다’고 주장했음을 전한다. 플루타르코스(『페리클레스』 36, DK80 A10)도 프로타고라스의 수사적 관심을 나타내는 한 일화를 전한다. 그 일화는 ‘어떤 5종 경기 선수가 파르살리안 출신의 에피티모스를 창으로 찔러서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되었을 때, 가장 올바른 논의에 따라 경우(kata ton orthotaton logon) 그 사건의 탓(법적인 책임: aitia)이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지, 즉 창에 있는지 [창을] 던진 자에게 있는지 그도 아니면 그 시합의 심판들에게 있는지를, 프로타고라스와 페리클레스가 함께 논하면서<sup>12)</sup> 하루를 꼬박 보냈다’는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프로타고라스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탓이라고 보이게끔 만들 설득력 있는 논변을 구성할 수사적 능력을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거드리(1971, 181-2쪽)가 말하듯, 프로타고라스가 다양한 종류의 수사적 행위와 기술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료들은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표명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그의 수사 기술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시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타고라스가 논변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어떤 수사적 전략이라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프로타고라스에게 공정히 귀속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론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프로타

12) 프로타고라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의 교제에 대해선 뉘어J. V. Muir (1982, 17-24쪽), 바렛H. Barrett(1987, 10쪽), 드 로미이J. De Romilly(1992, viii쪽과 21쪽), 그리고 오셀리반N. O’Sullivan(1995, 15-23쪽) 등을 참조할 것.

고라스가 언어론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그의 거의 모든 저작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오직 몇몇의 단편들만이 남아있기에, 프로타고라스가 실제로 언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5, DK80 A1)가 프로타고라스의 소실된 저술들 중에 『배움에 대하여 (Peri Tōn Mathēmatōn)』라는 제하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는데, 그와 같은 저술에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이론으로 발전된 상태로 담겨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이론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아서 전해지는 저작들이 없기에, 프로타고라스가 실제적인 언어론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수사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비록 프로타고라스가 『일리아스』의 첫 구절을 인용하며 호메로스를 비판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을 보여주는 모든 사례들이 그 텍스트로부터만 온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헤르모게네스에게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살피는 일이 꺼려진다면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살펴보자고 청한다.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에 대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보고와 아리스토파네스의 풍자 역시 호메로스와 무관하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는 ‘메니스’와 ‘펠렉스’의 사례와 관련하여, 비록 호메로스가 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반드시 호메로스에게서만 사용되는 배타적인 것들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메니스’는 소포클레스의 『참주 오이디푸스』 699행과 헤로도토스의 『역사』 7권 134행, 그리고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701행이나 『에우메니데스』 234행에서도 발견된다. 설령 그 단어가 호메로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이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호메로스를 비판하면서 오직 수사적 목적을 지향했다는 바를 필연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만약 호메로스의 작품들이 당시, 특히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면, 그의 작품들 속에서 발견되는 언어적이고 문법적

인 오류들을 관찰하여 그것들을 옳게 잡으려는 시도는 언어 이론의 더 나아가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며, 오히려 수사적 효과는 그 방식으로부터 야기된 일종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의 옳은 사용은 그릇된 언어적 그리고 문법적 사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때 그릇된 언어 사용을 옳게 잡는 일이란 곧 그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초하고 있기에, 사물들의 본성에 맞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일로 이해된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사물들의 본성을 위배하려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사물들의 객관적인 본성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언어(의 관습적 사용 용례)의 교정을 꾀하는 일이다. 실로 프로타고라스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옳게 잡으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어떠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혹은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언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드러프P. Woodruff (2005, 158-9쪽)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자신만의 고유한 진리의 기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상대화 하면서 참된 판단을 구성해버리는 “급진적인 상대주의자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언어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뿐”이며 결코 “옳게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장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옳게 언어를 사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그의 촉구는 언어의 객관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대고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은 언어가 가리키는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언어 규범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단순히 수사학적 효과나 논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모든 이들이 객관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 V. 시민교육으로서의 프로타고라스 언어론

그렇다면 왜 프로타고라스는 이처럼 사물들의 본성에 맞춰 언어를 옳게 사용해야 한다는 객관주의적 규범성을 갖춘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주장했

던 것인가? 앞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듯이, 그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혀줄 사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의 시민 교육에 대한 주장을 증언하는 고대의 사료들이 남아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아넥도타 파리시엔시아』(I.171.31, DK80 B3)는 프로타고라스가 『위대한 연설(Megas Logos)』이라는 저술에서 ‘가르침은 본성과 연마를 필요로 하며 [...]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는 단편을 남겼다고 전한다. 플루타르코스(『연마에 대하여』 178.25: DK80 B11)는 프로타고라스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육은 결코 영혼 안에서 꽃피울 수 없다’는 단편을 남겼으며,<sup>13)</sup> 스토바에우스(Florilegium, iii.29.80, DK80 B10)는 프로타고라스가 ‘연마 없이 기술은 아무 것도 아니며, 기술 없이 연마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단편을 남겼다고 전한다. 『크라틸로스』와 『파이드로스』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이름의 옳음을 전하는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 325d-326e에서 그가 인간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선 말을 통한 교육과 글로 쓰여진 법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강조했다고 전하며, 그의 시제와 화법의 구분을 전하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5(DK80 A1)에서 그가 일종의 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저술들, 즉 『사람들에게 있어 옳지 않은 행위들에 대하여(Peri Tōn Ouk Orthōs Tois Anthrōpois Prassomenōn)』, 『훈육(訓育)(Prostaktikos)』, 그리고 『배움에 대하여』를 지었다고 전한다.<sup>14)</sup> 이상의 고대 사료들 가운데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편이 프로타고라스의 시민 교육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를 통해 시민 교육과 언어의 옳은 사용이 어떤 연결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13) 이 단편의 그리스어 텍스트는 현재 소실되고 없으며, 오직 시리아어로 번역된 사본만이 남아있다. 현대의 편집본들은 시리아어 사본을 독일어로 번역한 길데마이스터J. Gildemeister와 뷔첼러F. Bücheler의 판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14) 시민 교육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공언과 관련하여서는 『메논』 91d-92a(DK80 A8), 『대(大)히피아스』 282d6-e8, 그리고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5 또한 참조할 것. 이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논의로는 운터슈타이너M. Untersteiner(1954, 3-5쪽과 64-5쪽), 맥과이어J. Maguire(1977, 104-5쪽), 커퍼드(1981, 25-6쪽), 그리고 우드러프(2005, 158-9쪽과 195-201쪽, 그리고 2007, 1-11쪽) 등을 참조할 것.

『프로타고라스』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들을 말하는 데 있어 영리하도록 만드는 일’을 책임지는 자로 그려진다(312d6-7). 소크라테스가 정확히 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을 말하는 데 있어 영리하게 만드는지를 물으며 정확히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하자, 프로타고라스는 ‘집안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집안을 가장 잘 경영할 것인지, 또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나라의 일들을 가장 능력 있게 행하고 논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 다시 말해 인간을 좋은 시민(*agathos politēs*)으로 만드는 시민의 기술(*politikē technē*) 즉 시민의 탁월함(*politikē arête*)을 가르친다고 공언한다(318e5-319a5).

시민의 탁월함을 가르친다는 프로타고라스의 공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두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그의 두 반론이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조언을 하기에 시민의 탁월함이 가르쳐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319b3-d7), 또 시민의 탁월함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던 훌륭한 자들이 자식들의 교육에 있어 실패한 것을 보니 역시 그로부터 탁월함은 가르쳐질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319d7-320b3)는 것이다.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이를 가르친다고 공언했기에, 그것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달라고 소크라테스는 요청한다. 소크라테스의 반론에 대한 대답으로 프로타고라스는 긴 연설을 펴는데, 이 연설은 ‘신화’라 불리는 부분(320c8-322d5)과 (그것의 간략한 요약 및 설명이 포함된 322d5-324d1) ‘논변’이라 불리는 부분(324d1-328c2) (그리고 논 전체의 간략한 요약을 담은 328c3-d2)으로 구성되며, ‘신화’ 부분은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반론에 대한 그리고 ‘논변’ 부분은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다.

‘신화’ 부분은 인간의 정치적이며 윤리적 본성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본성적인 능력을 갖춘 비-이성적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별적 생존을 위해 우선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과 기술적 지혜를 받아 갖춘 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해야 했기에, 이를 위해 제우스는 수치감(羞恥感: a sense of shame, *aidōs*)과 정의감(正義感: a sense of what is right, *dikē*)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였

다(324d7-325b4).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수치감과 정의감을 나눠 가지게 되었기에, 그리고 그로부터 이후 사적으로든(가정 교육) 공적으로든(학교 및 도시 교육) 정의(dikaiosynē)나 절제(sōphrosynē)와 같은 시민의 탁월함을 교육과 돌봄을 통해 얻었기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모든 이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한다.

이어지는 ‘논변’ 부분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하며 시민 교육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은 처음부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시민 교육을 받는다.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 교육은 유아기 때 부모나 보모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 교육은 학교나 도시의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말(logos) 즉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부모들은 그들에게 ‘모든 말과 행위로 [...]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며, 이것은 훌륭하고 저것은 추한 것이고, 또 이것은 경건하고 저것은 불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을 해라” 반면에 “저것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시민의 탁월함을 그들 영혼 안에 심어주려 노력한다(325d2-5). 이후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보내져 시민성과 조화 그리고 적용력과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행실(eukosmia)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훌륭한 시인들의 작품들이나 뤼라 같은 악기 연주에 초점을 맞춘다. (시가와 음악에 대한 교육 이후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체에 있어서 조화와 기개가 획득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교육 이후 아이들은 도시의 명예 따라 법을 배우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강제된다. 도시의 교육은 마치 글자 교육과 같은 방식에서 이루어진다. 글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글판 위에 밑줄을 그어서 아직 글자를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줄을 따라 글자를 쓰도록 하듯이, 도시는 옛 입법자들이 고안하여 제창한 법을 밑줄처럼 지침 삼아 시민들이 그 줄을 따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도록 하며, 누군가 그 줄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도시는 그를 벌하는데(326d5-8), 그때 벌은 ‘뚝바로 잡기(euthynai)’, 즉 ‘교도’라 불린다. 이처럼 말하며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

스의 두 번째 반론에 대답한다.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초한 언어의 옳은 사용을 주장하는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프로타고라스』에서 연설을 하는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인물이라면 (즉 플라톤의 허구적 창작 캐릭터가 아니라면), 그래서 각각의 주장을 연결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관심은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본성적 능력을 부여 받은 인간들이 쓰여지고 말해지는 것들, 즉 언어를 옳은 방식에서 이해해야지만 도시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도시 안에서 언어를 통한 옳은 소통으로 시민의 탁월함을 교육하고 획득된 이 탁월함을 고취시켜 서로 부정한 행위를 할 계기를 미연에 막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간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마자 어른들은 가능한 한 모든 말로 그리고 “이것을 해라” 반면에 “저것은 하지 마라”라고 지시하며, 아이들의 마음에 시민의 탁월함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그와 같은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이들은 언어를 옳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경건한 것과 불경한 것, 그리고 훌륭한 것과 추한 것 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훌륭한 옛 입법자들이 고안한 글로 쓰여진 도시의 법은 삶의 본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 도시의 법을 이해하고 따르는 일 역시 사람들이 글로 쓰여진 그 법을 가장 옳은 방식에서 이해하고 따를 때, 즉 언어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렇지 않다면, 즉 잘못된 방식에서 이해하고 따른다면, 비록 의도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본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져 자신들의 보존에도 위험을 닥치게 할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언어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민의 탁월함에 대한 교육은 커녕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일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말과 글 즉 언어를 통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언어를 상대적으로 사용하라고 장려할 성 싶지는 않아 보인다. 언어를 옳게 사용하는 최상의 방식은 언어를 사물들의 본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다. 언어를 사물들의 본성에 따라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상대적이거나 인위적인 언어의 사용이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옳고 경건하며 훌륭한 것을 행하고, 그릇되며 불경스럽고 추한 것을 피하라고 말을 통해 교육을 하거나, 공동체의 (그래서 종족의) 보존을 위해 법을 본으로 삼아 살 것을 교육하는 것 모두 사물들의 본성에 따라 언어를 옳게 사용할 때 안전하게 보장 받고 더 나아가 성취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은 그의 시민 교육을 위한 목적에 그와 같이 부합한다.<sup>15)</sup>

15)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시민 교육을 위한 목적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선, 앞서 필자가 스스로 밝혔듯, 『프로타고라스』에서 연설을 하는 프로타고라스와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주장하는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동일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전자가 후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다고 해야 하며, 따라서 이 문제를 밝혀야 할 의무가 필자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의 논문이 될 만큼 상당한 작업을 요하는 일이지 여기서는 간략하게 연구가들의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가가린M. Gagarin(1968, 90쪽)은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 연설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으며,” [...] “아울러 연설이 가진 내적 일관성과 단일성은 이 연설이 여러 사람들의 제각각 의견들을 종합했다고 여길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프로타고라스』에서 연설을 하는 프로타고라스를 역사적 프로타고라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아담J. Adam과 아담 A. M. Adam(1893, xxi-xxii쪽) 역시 이 입장에 서며, 시아파E. Schiappa(1991, 145-7쪽)는 아에 플라톤이 실제 프로타고라스의 연설문을 그대로 옮겨왔다고까지 논한다.

반면 그로테G. Grote(1875, 47쪽 각주 1), 레비A. Levi(1940, 292-3쪽), 애드킨스A. W. H. Adkins(1990, 4-5쪽) 등은 『프로타고라스』의 프로타고라스가 역사적 프로타고라스와 동일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의 실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슬W. Nestle(1942, 282-9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설 내용의 출처가 프로타고라스의 『최초의 공동체에 대하여』(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9.55)였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운터쉬타이너(1953, 75-85쪽), 커퍼드(1953, 42-5쪽), 거드리(1971, 64쪽 각주 1과 265-8쪽), 반즈J. Barnes(1982, 450쪽), 닐M. Nill(1985, 5-7쪽), 테일러C. C. W. Taylor(1991, 78쪽), 파라C. Farrar(1998, 78쪽), 볼프스도르프D. Wolfsdorf(1998, 126-33쪽), 모건C. Morgan(2000, 12쪽과 132-6쪽), 딜런과 거젤(2003, 22쪽과 343쪽 각주 30), 오그레이드P. O'Grady(2008, 39쪽), 베레스포드A. Beresford(2009, 2-5쪽) 등이 이에 동조한다. 필자는 이들과 입장을 함께 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반대하여 연설이 플라톤의 순수 창작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헤이벨록(1957, 407-9쪽), 알렌R. E. Allen(1996, 100-2쪽) 그리고 프라이어W. Prior(1988, 318-9쪽) 등이 있다. 알렌R. E. Allen(1996, 100-2쪽)은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스스로 신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는 ‘신들에 대하여(peri theōn)’ 단편을 남긴 반면, 연설에서는 신들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기에, 프라이어W. Prior(1988, 318-9쪽)는 『프로타고라스』에서 재현되는 연설이 상대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기에, 역사적 프로타고라스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허나 알렌의 주장은 불가지론 주장과 무신

## VI. 나가는 말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전하는 사료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플라톤은 『크라틸로스』 390d-391c와 『파이드로스』 267b-c에서 사물들의 이름이란 그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다는 언어의 자연주의적 입장을 프로타고라스가 가르쳤다고 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가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을 전한다. 전자는 프로타고라스가 사물들이 가진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이름의 성의 구분(『수사학』 3권 5장 1407b6-9), 어법의 옳은 사용(『소피스트적 논박』 14장 173b16-25), 법의 구분과 올바른 사용(『시학』 19권 1456b15-18)을 강조했으며, 후자는 시제와 화법을 구분(『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9.52-54)했다고 전한다. 이상의 사료들은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이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문법적 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문법적 성에 따라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이름들이 그 모양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형태적 일관성’을 전한다.

언어를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어가 가진 객관성과 규범성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를 임의적으로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어를 사물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보장받는 객관성과 규범성은 언어가 프로타고라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되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넥도타 파리시엔시아』 I.171.31에서 언급이 되는 프로타고라스의 『위대한 연설』이나, 플루타르코스의 『연마에 대하여』 178.25, 그리고 스토바에우스의 전언(Florilegium, iii.29.80)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제법 많은 수

---

론 주장을 무분별하게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프라이어의 주장은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필히 상대주의자였음을 논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의 고대 사료들이 프로타고라스의 시민 교육에 대한 강조를 보고하고 있다. 또 그의 저술들 중 훈육이나 배움 그리고 옳지 않은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점 역시 프로타고라스의 시민 교육에 대한 강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민 교육에 대해 그가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입장은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320c-328d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거기서 프로타고라스는 개별적 생존을 위해 불과 기술적 지혜를 받아 갖춘 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정의감과 수치감을 부여 받은 인간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적이고 공적인 교육들을 논하는데, 그 논의 안에서 언어를 옳게 사용해야 함이 함축되어 있다. 즉 부모가 아이를 말을 통해 가르칠 때 아이가 부모의 말을 옳게 이해해야 하고, 도시가 법률을 통해 시민들을 인도할 때 시민들은 글로 쓰여진 법률을 옳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언어를 옳게 이해하는 일은 그 언어에 대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사회나 개인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언어를 옳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은 이처럼 그의 시민 교육에 대한 강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 부록: 플라톤 『크라틸로스』에 나타나는 두 상충하는 프로타고라스 언급<sup>16)</sup>

플라톤은 『크라틸로스』에서 프로타고라스를 두 번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인용된 부분(대화편상의 등장 순서를 따를 경우 두 번째 언급: 390d7-391c4)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 각각의 도시들이 관습에 따라 사물들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규약주의적 언어론을 헤르모게네스가 논하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혹시 그가 ‘있는/~인 것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즉,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사물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있다고/~이다고] 여기는지,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사물들이 나에게는 나에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있고/~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있다는/~이라는 뜻이었기에, 헤르모게네스 역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따라 있는/~인 것들의 본질이 각자에게 저마다 고유하게 있다고/~이다고 여기는지’를 묻는다(대화편상의 등장 순서를 따를 경우 첫 번째 언급: 385e-386a).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규약주의적 언어론을 고수하는 헤르모게네스는 곧바로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을 거부한다. 이 단락에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론’을 따를 경우 사물들의 이름들이 그 이름들을 사용하는 자들에 따라 상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소개되고 해석되는 ‘인간척도론’에 기초하여, 세들리D. Sedley(2003, 54-5쪽)는 “프로타고라스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곧 사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물들 각각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것들의 본성들

16) 프로타고라스 언어론을 그의 다른 단편들, 특히 ‘인간척도론’과 연계하여 논하는 일, 특히 플라톤이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은 프로타고라스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 전부를 제한된 지면 안에 모두 담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프로타고라스 언어론의 성격 규정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프로타고라스 언어론과 ‘인간척도론’ 사이의 연계성 혹은 상충성을 논하는 작업을 위해서라도 그의 언어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프로타고라스 언어론과 ‘인간척도론’을 연계적으로 다루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이 둘 사이의 문제점을 간단히 부록 형식으로 제시한다.

에 따라 옳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급진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프로타고라스는, 앞서 인용된 바와 같이(두 번째 언급) 플라톤이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초하여 이름의 옳음을 주장하는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할 때의 프로타고라스와 완전히 모순되는 입장을 가진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한 플라톤의 이와 같은 모순적인 자세에 대해 세들리(같은 책, 77쪽)는 다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행하려는 바는 현재 주어진 지적 담론을 하려는 것인데, 당시의 모든 이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진중하게 지적 담론을 하려 했다고 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프로디코스나] 프로타고라스가 이름의 옳음으로 의미하려 했던 바는 실제로 단어들이나 이름들이 가진 숨겨진 본성을 찾고자 하는 탐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좀 더 개선된 방향에서 어휘를 사용하자는 수준이었을 것”라고 제안하며, 그렇기에 프로타고라스가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통해 사물의 본성에 따라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의 옳음이라는 표현으로 미약하게 어휘의 개진을 시도하려 했던 것 뿐이며, 여전히 상대주의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두 차례 언급하며 스스로 모순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톤에 호의적인 세들리의 주장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않는다. 만약 단순히 당시의 소피스트들이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려 했던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보이려 했다면, 플라톤은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초하여 단어와 이름의 옳은 사용을 논하는 부분에서 굳이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는 대신에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고수하는 다른 이들을 언급하는 것이 플라톤 자신에게 더욱 용이했을 것이며, 일례로 그가 프로디코스를 거론했었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왜냐하면 플라톤 스스로가 이름들을 구분 짓고 옳은 이름을 논하는 일과 관련하여 『크라틸로스』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대화편에서 실질적으로 프로디코스를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의 각주 10 참조).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대화편에서 두 차례 언급하는 것에 대해 두 방식에서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플라톤의 두 차례 프로타고라스 언급이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인간척도론’이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모순되는 상대주의적 언어론을 필연적으로 함의하고 있으며,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면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척도론’이 반드시 상대주의적 언어론을 함의하는지, 또는 플라톤이 이를 의도했는지는 의문이다. 플라톤이 두 번째 언급에서는 자연주의적 언어론에 기초하여 이름의 옳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한 반면, 첫 번째 언급에서는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가 급진적인 언어 상대주의를 주장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거기서 플라톤은 단순히 프로타고라스가 이름들(onomata)이 아니라 ‘있는(~인) 것들(ta onta)’이 개개인에게 보이는 대로라고 주장했다고 말할 뿐이다. 어쩌면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두 번째 언급), 누군가 규약주의적 언어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엔 프로타고라스가 ‘있는 것들’을 통해 주장했던 급진적 상대주의의 입장으로 ‘이름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비하기 위해(첫 번째 언급)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이해한다면 첫 번째 언급에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비를 위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론’을 끌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들리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필연적으로 규약주의적 언어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같은 책, 203쪽)”고 하며, 그렇기에 “헤르모게네스의 규약주의적 언어론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 상대주의를 수반한다고 함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래서 인식 상대주의가 언어 규약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함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같은 책, 54쪽)”고 논한다. 실제로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인간척도론’을 다루면서 지각되는 대상들이 지각 주체에 대해 지각되는 바에 따라 그렇게 지각되며 또 그렇게 있다/~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 대상들의 이름들이 필연적으로 상대화된다고 논하지는 않는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옳은 이름들이 주어진다는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이름들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지각되는 바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그 지각되는 것이 지각되는 대로 자신에게 있다/~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식 상대주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플라톤은 실로 ‘인간척도론’이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인간척도론’을 언명했던 당사자, 즉 프로타고라스가 동시에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가지는 이름의 옳음 가르쳤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을 스스로 모순하고 있는 것이며, 플라톤은 이를 극작의 형식에서 넌지시 드러내 보이려 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척도론’의 입장을 고수하는 프로타고라스는 규약주의의 성격을 띤 언어론을 표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에 기초하여 이름의 옳음을 가르친다고 공언하기에 자기 모순의 탓은 프로타고라스에 돌아간다는 것을 플라톤이 극적 구성의 방식에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굳이 프로타고라스의 언어에 대한 기술을 폄하할 필요 없이, 동시에 그의 ‘인간척도론’을 상대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며, 단지 프로타고라스 자신이 스스로 모순되고 있는 두 입장, 즉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입장과 자연주의적 언어론의 입장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플라톤식의 풍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리고 위의 두 이해 방식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는 일과 관련하여 플라톤이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범한다고 여길 필요는 없게 된다.

투 고 일: 2013. 04. 01.  
 심사완료일: 2013. 04. 30.  
 게재확정일: 2013. 05. 01.

이윤철  
 서울대학교

17) 급진적인 언어 상대주의가 『크라틸로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이를 거부하는 논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들리(같은 책, 54-8쪽)와 바니R. Barney(2001, 28-33쪽) 참고할 것.

## 참고문헌

- 강성훈 (옮김),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1.
- 김인곤·이기백 (옮김), 『플라톤: 크라틸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 김재홍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적 논박』, 서울: 한길사, 1999.
- 김주일 (옮김), 『플라톤: 파이드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2.
- 천병희 (옮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고양: 도서출판 숲, 2002.
- Adam, J. and Adam, A. M., *Platonis Protagoras: With introductions, notes, and appendices by J. Adam and A. M. Ad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3.
- Adkins, A. W. H., “Myth, Philosophy, and Religion in Ancient Greece”, in Reynolds, F. E. and Tracy, D. (eds.), *Myth and Philosophy*, 1990, pp.95-130.
- Allen, R. E., *Plato: Ion, Hippias Minor, Laches, Protagora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Barnes, J.,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rev. and ed. in one paperback volum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2.
- \_\_\_\_\_, (ed.),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Barney, R., *Names and Nature in Plato's Cratylu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_\_\_\_\_, ‘The Sophistic Movement’ in Gill, M. L. and Pellegrin, P. (eds.), *A Companion to Ancient Philosophy* (Blackwell Companions to Philosophy), 2006, pp.77-97.
- Barrett, H., *The Sophists*, Novato, California: Chandler and Sharp Publisher, 1987.
- Beresford, A., “The Story in the *Protagoras*: Sketching a Naturalistic Ethics”, forthcoming in *Protagoras of Abdera, The Man, His Measure (Philosophia Antiqua Series)*, Leiden:

- E. J. Brill, 2009.
- Capizzi, A., *Protagora: Le Testimonianze e I Frammenti, Edizione Riveduta e Ampliata con Uno Studio su La Vita, Le Opere, Il Pensiero e La Fortuna* (aka C.), Firenze: G. C. Sansoni-Editore, 1955.
- Caston, V. and Graham, D. W. (eds.), *Presocratic Philosophy: Essays in Honour of Alexander Mourelatos*, Aldershot: Ashgate, 1988.
- Classen, C. J. (ed.), *Sophistik*,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a.
- \_\_\_\_\_, ‘The Study of Language amongst Socrates’ Contemporaries’, in Classen, C. J. (ed.), *Sophistik*, 1976b, pp.306-11.
- Cooper, J. M., *Plato: Complete Works*, Indianapolis: Hackett, 1997.
- De Romilly, J., *The Great Sophists in Periclean Athens* (English trans. by Lloyd, J.),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Di Cesare, D., “Die Geschmeidigkeit der Sprache. Zur Sprachauffassung und Sprachbetrachtung der Sophistik”, in Schmitter, P. (ed.), *Sprachtheorien der abendländischen Antike* (the First Edition in 1991), 1996, pp.87-118.
- Diels, H. and Kranz, W. (eds.),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6th edition. 3 vols (aka DK), Zurich: Weidmann, 1951-2.
- Dillon, J and Gergel, T., *The Greek Sophists*, London: Penguin, 2003.
- Donovan, B. R., “The Project of Protagoras”, *Rhetoric Society Quarterly* 23, 1993, pp.35-47.
- Dunn, F. M., “Protagoras and the Parts of Time”, *Hermes* 129, 2001, pp.547-50.
- Farrar, C., *The Origins of Democratic Thin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Fehling, D., “Zwei Untersuchungen zur griechischen Sprachphilosophie”,

- Rheinisches Museum* 108, 1965, pp.212-29.
- Gagarin, M., *Plato and Protagoras*, Yale University(Ph.D. Thesis), 1968.
- Gomperz, H., *Sophistik und Rhetorik: Das Bildungsideal des eu  
legen in seinem Verhältnis zur Philosophie des 5. Jahrhunderts*,  
Stuttgart: B. G. Teubner Verlagsgesellschaft, 1965.
- Grote, G., *Plato and the Other Companions of Sokrates*, Vol. 3,  
London: Murrary, vol. II, 1875.
- Guthrie, W. K. C., *The Sophists* (also in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3: *The Fifth Century Enlightenment*, 19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Havelock, E. A., *The Liberal Temper in Greek Pol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Kanavou, N., *Aristophanes' Comedy of Names: A Study of Speaking  
Names in Aristophanes*,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10.
- Kerferd, G. B., "Protagoras' Doctrine of Justice and Virtue in the  
*Protagoras* of Plato",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3,  
1953, pp.42-5.
- \_\_\_\_\_, *The Sophistic Movement* (김남두 옮김 (2003), 『소  
피스트 운동』, 서울: 아카넷), Cambridge, New York and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Lana, I., *Protagora*, Torino: Tip. Torinese, 1950.
- Levi, A., "The Ethical and Social Thought of Protagoras", *Mind* 49,  
1940, pp.284-302.
- Long, A.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Greek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Lougovaya, J. and Ast, R., "Menis and Pelex: Protagoras on  
Solecism", *The Classical Quarterly* 54, 2004, pp.274-77.
- Maguire, J., "Protagoras ... or Plato? II: The *Protagoras*", *Phronesis*

- 22, 1977, pp.103-21.
- Morgan, K., *Myth and Philosophy from the Presocratics to Pla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Muir, J. V., “Protagoras and Education at Thourioi”, *Greece & Rome* 29, 1982, pp.17-24.
- Nestle, W., *Vom Mythos zum Logos*, Leipzig: Teubner, 1942.
- Nil, M., *Morality and Self-Interest in Protagoras, Antiphon and Democritus*, Leiden: E. J. Brill, 1985.
- O’Grady, P., *The Sophists: An Introduction*, London: Duckworth, 2008.
- O’Sullivan, N., “Pericles and Protagoras”, *Greece & Rome* 42, 1995, pp.15-23.
- Pfeiffer, 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1968.
- Porzig, W., *Das Wunder der Sprache: Probleme, Methoden und Ergebniss der modernen Sprachwissenschaft*, München and Bern: Sammlung Dalp, 1950.
- Prior, W., “Protagoras’ Great Speech and Plato’s Defense of Athenian Democracy”, in Caston, V. and Graham, D. W. (eds.), *Presocratic Philosophy: Essays in Honour of Alexander Mourelatos*, 1988, pp.313-26.
- Rademaker, A., “ἀττ’ ἐστὶν ὁρθῶς ἄρρενα: Protagoras on Language and Grammar”, *Protagoras of Abdera* (Protagoras Conference, July, 2007, Leiden), 2007, pp.1-8.
- Rankin, H. D., *Antisthenes Sokraticos*, Adolf M. Makkert-Publisher-Amsterdam, 1986.
- Reynolds, F. E. and Tracy, D. (eds.), *Myth and Philosoph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Robins, R. H.,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7<sup>4</sup>.

- Romeyer Dherbey, G., *Les Sophist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5.
- Saupe, H. and Towel, J. A., *Plato's Protagoras: With the Commentary of*, Boston and London: Ginn & Company, 1889.
- Schiappa, E., *Protagoras and Logo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1.
- Sedley, D., *Plato's Cratyl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Plato's Cratyl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 2006.
- Sprague, R. K. (ed.), *The Older Sophis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2.
- Steinthal, H.,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bei den Griechen und Römern, mit besonderer Rücksicht auf die Logik*, I-II, Berlin: F. Dümmler, 1891.
- Taylor, C. C. W., *Plato: Protagoras* (Translation with Notes by C. C. W. Taylor, rev. with New Material wi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e First Edition in 1976), 1991.
- Untersteiner, M., *The Sophists* (English trans. by Freeman, K., 1996), Oxford: Basil Blackwell, 1954.
- Wolfsdorf, D., "The Historical Reader of Plato's *Protagoras*", *The Classical Quarterly* 48, 1998, pp.126-33.
- Woodruff, P., "Rhetoric and Relativism: Protagoras and Gorgias" in Long, A.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Greek Philosophy*, 1999, pp.290-310.
- \_\_\_\_\_, *The First Democracy: The Challenge of An Ancient Idea* (이윤철 옮김 (2012), 『최초의 민주주의: 오래된 이상과 도전』, 서울: 돌베개),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ABSTRACT

## Protagoras' Naturalism of Language

Lee, Yoon Cheol

Protagoras' interest in linguistics chiefly lies in the correct use of language, such as the correctness of words and names (*orthoepia*) and correct linguistic and grammatical usage. As the correctness of language is grounded on the nature of things, Protagoras' linguistic interest amounts to the naturalism of language by which the sophist emphasizes 'the grammatical genders on the basis of natural genders of things' and 'the morphological consistency' of the words based on their grammatical genders. The Understanding of Protagoras' purpose of the correct use of language can be proposed in light of his emphasis on civic education, according to which it is argued that all men should apprehend what is said and the city laws correctly, for the goal of the preservation of their race in a community (cf. *Prot.* 321b6-322b1 and 325d2-326e1). The correct use of language, in this respect, is thus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such apprehension and the goal.

**Keywords:** Protagoras, Correct Use of Language, Naturalism of Language, Civil Education

